

제각기 마음의 불을 켤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필요해요

25면에서 계속

우리 몸이 없다면 영원한 불성도 없고 법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승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걸 잘 주려서, 그냥 한마디씩 잘 듣고 소화를 하시도록 하세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지금 현대 용어로 하려니 힘이 들죠. 허허하...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됐다가 지금 현실에 차례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만든 컴퓨터는 한계가 있어서 입력을 해 놓은 것만 쓸 수 있지만 우리 자동적인 컴퓨터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컴퓨터로 가서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차곡차곡 입력이 돼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들이고 내는 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중용을 하는 자체를 어디서 하느냐. 지수화풍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도 이것은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렇게 들이고 내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찰나찰나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고 올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더하고 덜하고 없어요. 육근으로부터 육식이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의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뱅뱅 도는가 하면 길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도 산 사람인 양 생각을 하게 되고, 강에 가도 빠져 죽을까 봐 강을 못 건너게 되고, 불바퀴를 넘어서려도 타 죽을까 봐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일체 만물을 보고 살았던 것이 있어서, 무시무시한 뱀이나 귀신들이나 무서운 짐승들이나 그런 생물들이 다 살아 있는 양 그려져 있는 그 환상 속을 살지 자기가 몸이 있는 줄 알고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물속의 생명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주머니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자유로이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유로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벗어나야 자유권을 얻고 자유권을 얻어야 세세생생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일체 만물만생이 아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가 되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법신이 되고, 움직여졌을 땐 화신이 돼서 응신으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다 원해도 거기에 응해서 둘 아니게 건져진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머리카라처럼 인생살이가 벌어진 겁니다. 인생은 짧기도 하며 길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망 짊어지고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식들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세포에 있는 그 의식들이 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반쯤이 의식적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철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자기네 집에서 결망 짊어지고 놀러 나와서 남들하고 더불어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 다 자기 집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지금 인생살이가 그렇다 이겁니다. 짧은 기간에 결망 짊어지고 나와서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악업 선업이 다 합해서 차례차례로 차근차근히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게 하는 길은 단 하나 있습니다.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 놓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겠지만, 옛날에 어떤 선지식께서 앉아 계신데 어느 스님이 오셔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걸 모르잖아 네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한 번 들어가서 배워 가지고 나오니라. 그래야 그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러더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자궁이라는 소리로 들지 마시고,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자궁이기도 합니다. 무의 세계, 내가 나온 자리에 다시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내가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그 섭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나오는 그 모든 것

을 나오는 자리에도가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되놓는 겁니다. '네 속에서 나온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깊은 마음속에다 말입니다. 뿌리가기도 하고, 이듬해서 주인공이라고 하죠. 일체 만물의 나무들도 일체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뿌리에 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끊어지면 그 나무들이 다 죽듯이 인간도 영혼의 뿌리인 자기가 개개인에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항상 남의 형상을 믿고 형상을 찾고, 이름을 믿고 이름을 찾고, 허공을 믿고 허공을 찾고 이런다면 자기의 그 뜻있는 뿌리는 언제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쪽 나무가 저쪽 나무를 믿고 에너지를 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빌어도 에너지는 이쪽 나무로 오지 않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에너지가 나무로 올라가서 그

통신이 돼서 바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한 잘나라도 심중 깊이 침착하게 굴러서 내놓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내보내지는데도 불구하고 합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해 버려요. 그렇게 해 버리고 난 뒤에 후회를 하고 아무리 울고 필멸 뛰어도 그때는 이미 저지른 일이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다섯 가지 업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잘 나오는 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잘못되는 거는, 꿈으로도 잘못 봤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다가 굴러 놓으세요. 자기가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말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있으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놓고 굴러서 그대로 내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죠. 내 영원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천차만별로 이름은 바뀌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 노릇도 하고 때로는 형님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하죠? 이름이 그렇게 많죠. 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아내 노릇도 하고 어머니 노릇도 하고 형 노릇도 하고 딸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고 친구 노릇도 하죠. 그렇게 하시죠? 찰나찰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죠? "어보!" 하면 아내 노릇을 하게 되고 남자들도 그렇고요. 그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칠성부처도 되고 독성도 되고 용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일체 만 보살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생각에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방편 아닌 방편으로써 현실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만 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경을 놓지 못하고 경을 보기 때문에 경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걸레를 빨아서 짜서 세숫대야에 담아 놓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 그러나 여러분이 금덩어리 돈뭉치를 가지고는 벌써 마음에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를 갖는데 널

어 뒤야지.'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 잊어버리지 않을 데로, 은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자기 한 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먹는 거, 혼자 보는 거, 혼자 듣는 거, 혼자 버는 거, 혼자 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여기 걸어들 때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혼자? 오기는 왔는데 발자취를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걸어들면서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지 않았듯이 우리는 공했다 말입니다. 안에도 공했고 바깥에도 공했어요. 마음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뛰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용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먹은 것도 없고 혼자 본 것도 없고 혼자 들은 것도 없고 혼자 산 것도 없고 혼자 태어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예를 들어서 위 공장 한 공장에서만 파이가 일어나도 여러분의 몸은 쓰러집니다. 집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집과 같아서 관리인, 심부름꾼, 바로 집합소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집합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름해서 아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몸뚱이만 아래의 집이 아니라 전체 한데 합해서 돌아가는 걸 아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걸 쪼그만 내 몸뚱이 하나로 축소해서 한번 보세요. 헤아릴 수도 없는 생명체들이 내 몸속에서 서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한 게 없고 혼자 먹는 게 없으니 아만통을 갖지 말고 '나' 라는 걸 세우지 마라. 혼자 한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으니 모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번뇌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번뇌가 불을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병 불을 자리도 없고 번뇌 불을 자리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는 분명코 왔는데 발자취를 걸머질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는 살아도 힘이 없이 살았던 얘깁니다. 이 세상을 살되 힘이 없이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5년 3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 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유로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벗어나야 자유권을 얻고
자유권을 얻어야
세세생생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무는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두서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그 요리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죽어서도 그렇게 정말 갈 데를 못 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자손 된 도리로서, 또는 부모 된 도리로서 진짜로 자부처를 믿고 열심히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자부처와 일체제불의 마음이 직결이 돼 있고 삼천대천세계가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이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깊어 들어가면 한마음으로 통신이 돼서, 대뇌로 가서 바로 소뇌로 직접 돌아가서 다시 대뇌로 와서 중뇌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찰나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갖는 것인데 우리는 몸속의 모든 의식들이 차례차례 나오는 걸 그냥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막 하고 생각을 막 해서 마구 저질러요. 마구 산단 말입니다. 한번 깊숙하게 통신을 해 가지고 대뇌로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만월등

팔각접등

중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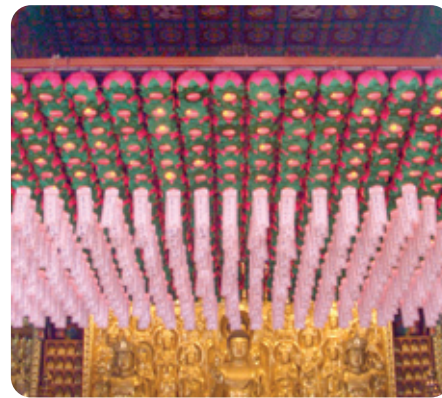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

- 내열 ABS
내열특성: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을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로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 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 한 LED 인등 ·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정도만 소요됩니다.



봉녕사 인등



용화사 목련관 위패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